

「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」 제도 안내

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「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」로 정하고 2014년 10월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 ‘세금문제 상담팀’과 ‘세금문제 처리팀’을 설치·운영하여 납세자의 불편사항 및 세금문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민원 신속하게 해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.

□ 「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」이란 ?

- 복잡한 세법규정 또는 불합리한 과세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관리자와 직원모두가 참여하여 납세자와 함께 처리하고
- 납세자의 애로·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세정에 반영하는 현장중심·납세자중심의 세금문제 처리제도입니다.
- 또한, 국민이 느끼는 작은 불편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국민과 함께 제도와 세정을 합리적으로 속도감있게 개선해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세정참여제도입니다.

□ 이용대상은 ?

- 각종 세금고충은 물론 세금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상담을 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궁금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면(국세청 126 세민네트워크센터 → ⑤번),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더 빠르고 알차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「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」은 언제인가요 ?

- 한 달에 한 번, 매월 셋째 주 화요일(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근무일)에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동시에 운영합니다.

□ 「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」 운영은 ?

◆ 세금문제 상담팀(창구 운영)

- 전국 모든 세무서에 납세자의 이용이 편리한 곳에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고, 「세금문제 상담반」과 「현장애로 상담반」을 편성하여 운영합니다.
- 「세금문제 상담반」은 7개 분야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금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해 드리며
 - * (7개 분야) 부가, 소득, 재산, 법인, 조사,징세, 불복청구 분야
 - ** (분야별 전문가) 외부전문가(1명)과 국세공무원(2명)을 3인 1조로 편성하며, 외부전문가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전문가(1,680명)와 국선세무대리인(237명)을 활용
- 「현장애로 상담반」은 관리자로 편성하며, 국세행정 개선을 위해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,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

◆ 세금문제 처리팀(각 과별로 운영 운영)

- 전국 모든 세무서의 모든 부서에 설치하고, 부서 전 직원을 「고충 처리반」과 「고충 현장확인반」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,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.